

“교사 수업권 · 타 학생들 학습권 보호 대책 마련”

서거석 교육감, 교육활동 침해 피해 발생 초등학교 방문... 피해 교원 위로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최근 학생과 보호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발생한 초등학교를 찾아 피해 교원들을 직접 위로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7일 오전 학교를 방문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한 학교 구성원들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대책 마련을 약속하고, 3학년 교실을 찾아 담임교사와 학생들을 격려했다.

전북교육청은 피해 교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전문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를 심의하는 전주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조속히 열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학교 학생의 심리 치유지원을 위한 전문가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해당 학교 교원들에게는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 회복을 위해 가해 학생 분리를 위한 긴급 인력을 즉시 지원해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7일 오전, 최근 학생과 보호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한 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한 학교 구성원들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피해 교원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학교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가능한 범위의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피해자 지원뿐만 아니라 위기 학생과 보호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모두가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대 스마트팜학과 학부생, 세계농공학회서 ‘두각’

석승원 · 김민재씨, 국제학술대회 각각 우수포스터 발표상



석승원



김민재

전북대학교 스마트팜학과 석승원(학부 4학년, 지도교수 김태곤), 김민재(학부 3학년, 지도교수 이준우) 학생이 최근 제주에서 열린 제6회 세계농공학회 국제학술대회(The 6th CIGR International Conference 2024)에서 각각 우수포스터 발표상을 수상했다.

석승원 학생은 김태곤 교수의 지도로 ‘Implications of Sowing Dates and Cultivars Selection based on APSIM with Decision Support for Successful Wheat Production in South Korea’라는 연구 주제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기상요인과 재배 방법, 품종에 따라 작물 생육을 모의할 수 있는 작물 모형인 APSIM을 이용해 국산 밀 품종의 파종 날짜에 따른 출수기와 성숙기를 시뮬레이션했다.

국립식량과학원의 도움을 받아 과거 작황조사자료를 이용해 국산 밀의 생육단계를 설명할 수 있는 모수를 선정했다. 연구 결과는 밀 생육 계공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별로 품종 선택시 농업 이해관계자들에게 의사지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 밀 생산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김민재 학생은 이준우 교수의 지도로 ‘Advanced Modeling of Environmental Factors for Precise Evapotranspiration Estimation in Greenhouse Crops’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온실에서 작물의 필요 용수량을 알기 위해 알고리즘을 도입한 로드셀 기반 시스템으로, 작물의 실제 증발산량을 추정했다. 또한, 온실 내 주요 환경 요인과 작물의 증발산량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여 작물 증발산량을 과대평가하는 기존 모델의 문제점을 보완했다. 이번 연구는 더 정확한 증발산량 추정 모델을 개발해 농가의 효율적인 관수를 통해 정밀농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곤 스마트팜학과 학과장은 “석승원·김민재 학생의 연구 성과는 시설재배와 노지재배(open field farming)에 대해 데이터 기반의 미래농업(스마트팜)으로 나아가는 기반 연구로 의미가 있다”라며 “특히 전세계 연구자가 모인 국제 학술대회에서 학부연구생임에도 두각을 나타냈다는 점에서 우리 학과의 미래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CIGR’은 국제농공학 및 바이오시스템공학 위원회로, 농공학 분야에서의 협력과 과학적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1930년에 조직되었다. 국제학술대회(International Conference)는 4년마다 개최되고 있으며, 6회 국제학술대회는 올해 5월 제주도에서 개최됐다. /김재훈 기자

양질의 한옥교육 ‘최우수’

전북대 한옥건축사업단, 한옥시공 관리자 양성과정 선정

전북대학교 한옥건축사업단(단장 남해경 교수)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한옥시공 관리자 양성과정’에 선정돼 건축사 등을 대상으로 양질의 한옥건축 교육을 실시한다.



전북대는 그간 국토부가 추진하는 한옥설계과정에 참여하며 계속 선정되어 왔다. 올해는 특히 예산상의 이유로 선정기관이 지난해에 비해 절반에 그쳤음에도 전북대가 또다시 선정됨으로써 국내 최고의 한옥교육기관이라는 명예를 지키게 됐다.

전북대는 그동안 양질의 한옥교육을 통해 최우수 교육기관에 연이어 선정됐으며, 지금까지 500여명의 한옥설계 전문인력을 배출했다.

올해 선정된 한옥시공 관리자 양성 과정은 건축사와 한옥 시공자를 대상으로 6개월의 교육을 통해 중견 한옥시공 관리자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교육은 전북대 전주캠퍼스의 한옥강의실인 심천학당에서 이론 수업을, 실습은 국내 최고 시설과 장비를 갖춘 고창캠퍼스에서 진행된다. 12월까지 교육이 진행되며, 수료식과 함께 그간 배운 내용을 졸업작품전을 통해 선보이는 자리도 마련된다.

교육에서는 한옥 이론과 특강, 실습교육, 한옥마을 및 건축답사, 한옥시공 실습 등 다양하고 전문화된 과정이 운영되며, 전북대 교수진과 전국 각지에서 한옥 관련 유명 교수진이 참여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는 실습 실습을 통해 건축한 정자를 교육이 끝난 후 체계하지 않고 공공기관이나 사회적 약자들에게 기부해 오고 있는데, 올해 역시 이러한 선례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국내 최고의 한옥건축 교육을 바탕으로 알제리아, 베트남, 필리핀

등에 한옥을 수출하기도 했으며 현재 10여 개 나라와 20여 개 한옥 수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교육생들 역시 교육과정 중 지역 취약계층의 한집 고쳐주거나 낡은 담장 페인트 칠하기 등의 봉사활동을 수행하며 지역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전북대는 그간 전국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한옥건축 체험 캠프’를 비롯해 ‘부모와 함께하는 어린이 한옥캠프’, ‘외국인 한옥캠프’, ‘대학생 한옥캠프’ 등 대상에 맞는 한옥교육을 실시했고, 미국과 일본, 그리스, 불가리아 등에서 한옥전시회도 개최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현재 고창 선운사에서 대웅전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건물을 보지 못하는 탐방객들을 위해 대웅전 기둥을 작품으로 제작해 선운사에 전시하고 있다.

특히 고창캠퍼스에 최고 수준의 한옥건축 실습장을 설치해 한옥기능 인력양성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전주캠퍼스 본교에는 대학원에 국내 유일의 한옥전공을 운영하고 있고, 올해 정규학과인 한옥학과를 국내 유일하게 신설해 신입생 모집에도 나선다. 전국의 거점국립대와 전북권 대학에 교양과목으로 ‘한옥개론’을 개설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특화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올 상반기 교육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역량 강화 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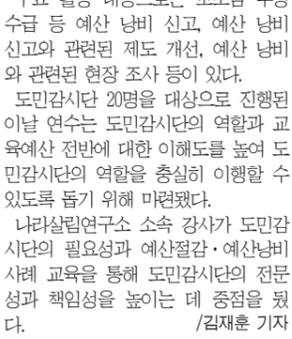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도민 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교육재정 운영을 위해 지난 7일 도교육청 창조나래 회의실에서 ‘2024년 상반기 교육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교육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은 건전한 지방교육재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안을 점검하고 제안하고자 구성됐다.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보조금 부정수급 등 예산 낭비 신고, 예산 낭비 신고와 관련된 제도 개선, 예산 낭비와 관련된 현장 조사 등이 있다.

도민감시단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연수는 도민감시단의 역할과 교육예산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도민감시단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나라살림연구소 소속 강사가 도민감시단의 필요성과 예산감각·예산낭비 사례 교육을 통해 도민감시단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김재훈 기자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 산학협력단이 지난 5일 지역 청년기업인들의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을 위한 동반성장 협약을 위해 ‘미국법인지사 설립사업’을 개설했다. /김재훈 기자

호원대 산학협력단 청년기업과 협약 체결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 산학협력단이 지난 5일 지역 청년기업인들의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을 위한 동반성장 협약을 위해 ‘미국법인지사 설립사업’을 개설했다. /김재훈 기자

호원대 산학협력단은 지역산업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전북 거북중합건설, 다이콤협동조합, 문화예술공동체 미담보담협동조합, 문화통신사 협동조합, 세이건축사무소, 오말, 위시아트랩, 이상한계절, ㈜봉숙, ㈜브랜더스, 파머라운지 총 11개의 청년기업과 협약을 맺으며 지역을 넘어 세계로 진출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로 최종 협의했다.

협약 이후에는 (전)한화그룹 임원이자 (현)전주시 통상타타인 최희승 위원이 ‘글로벌 시장개척 성공사례’, ㈜봉숙 김민호 대표가 ‘미국법인지사 설립 사례’ 그리고 다이콤협동조합 김명진 대표가 ‘기업 간 네트워크의 의미’에 대해 자유로운 분위기로 강연콘서트’를 열어 청년 기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군산=이재훈 기자

지역민과 함께하는 ‘필사교실’ 전북대 도서관서

26일부터 4주 과정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도서관장 송기춘)이 개교 77주년을 맞아 지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독서프로그램 필사교실을 신설한다.

도서관은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도서관, 지역과 함께 ‘필사교실’을 오는 26일부터 7월 17일까지 4주 과정으로 중앙도서관 4층 대학원 그룹학습실에서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작가와 함께 책을 읽고, 참가자들이 직접 책을 필사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인문학적 소통과 공감의 기회를 지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너도 작가가 될 수 있어’의 저자 이동영 작가가 참여해 특강과 함께 묵묵하는 시간, 필사하고 문장을 공유하는 시간을 매주 수요일 오후 3시에 가질 예정이다.

이에 전북대 중앙도서관은 이 프로그램의 참가자를 10일부터 14일까지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12명이며, 전북대 도서관 홈페이지(https://dl.jnu.ac.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지난 3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2024년 학부모 학교급식 정책모니터단’ 발대식이 열렸다.

안전하고 질 좋은 학교급식, 학부모가 챙긴다

전북자치도교육청, 학부모 학교급식 정책모니터단 운영

학부모들이 안전하고 질 좋은 학교급식을 챙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소통·공감하는 수요자 중심 급식정책을 추진하고, 학교급식의 질과 안전 제고를 위해 ‘학부모 학교급식 정책모니터단(이하 정책모니터단)’을 운영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정책모니터단은 각급 학교의 추천을 받아 유치원 3명, 초등학교 20명, 중·고등학교 17명 등 총 40명의 학부모로 구성됐다.

학생·학부모·학교가 함께 만드는 급식정책을 수립하고, 가정·학교를 연

계한 식생활 정책을 추진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정책모니터단은 △급식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 △자녀 식습관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자녀와 함께 하는 학교급식 지원 △급식시설 개선 아이디어 제안 △급식정책 만족도 설문 △영양·식생활교육 우수학교 방문 등의 활동을 오는 12월까지 수행한다.

이와 관련 정책모니터단은 10일 영양·식생활교육 우수학교인 김제 검산초등학교를 방문해 영양수업 및 조리·배식관리 등을 참관하고, 학교관리자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후 도교육청은 정책모니터단 활동

결과 및 학교급식 우수사례는 자료집으로 제작해 각급 학교에 안내하고,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개선·보완해 향후 학교급식 정책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이서기 문예체건강과장은 “교육청 차원의 학부모 학교급식 정책모니터단을 운영해 우리 교육청의 학교급식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해 나가자 한다”면서 “학교급식 정책모니터링 활동에 적극 참여해 안전하고 질 좋은 학교급식을 추진하는 데 보탬이 돼 달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지난 3일 도교육청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2024년 학부모 학교급식 정책모니터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자치도교육청, 2024년 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시행계획 공고

도내 6개 권역에 시험장 설치 17일부터 21일까지 원서접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4년도 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지난 7일 도교육청 누리집(www.jte.go.kr), 알림마당·고시·공고)에 공고했다.

2회 시험도 응시자들이 거주지와 가까운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6개 권역에 시험장을 설치·운영한다.

1권역은 전주·원주·김제, 2권역은 군산, 3권역은 익산, 4권역은 정읍·고창·부안, 5권역은 남원·순창·임실, 6권역은 진안·장수·무주이며, 시험장 설치지역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진안이다.

응시원서 교부는 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한다.

접수 기간은 교부 기간과 동일하지만 현장 접수의 경우 초·중·고·장·응시자는 응시를 희망하는 지역의 6개 권역 교육지원청(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진안)에 방문 접수를 해야 한다.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6개 권역 중 1 곳을 응시 희망지역으로 표기해 접수해야 한다.

국과자 학력인정자 및 재소시설 응시자는 도교육청 별관 2층 접수처에 방문해 응시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는 나이스 검정고시서비스 누리집(https://kged.go.kr)에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후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접수는 1일 단축된 6월 20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온라인 접수 기간 내에는 24시간 지원 가능하다.

원서를 제출하려면 최종학력증명서·증명사진 2매·신분증을 준비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시행계획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시험 장소는 7월 26일 10시 공고하고, 시험은 8월 8일 치러지며 합격자는 8월 30일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김재훈 기자